

영미 관광지리학의 변천에 대한 통시적 고찰 - 연구접근법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

신용석*

The Evolution of Tourism Geographies in Anglo-American Tradition: The Issue of Research Approach and Research Themes

Yongseok Shin*

요약 : 본 연구는 영미 관광지리학 분야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문헌연구법을 통해 통시적 고찰을 시도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미 관광지리학 연구흐름을 연구접근법과 주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관광지리학 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영미 관광지리학 연구흐름의 변화는 지리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연구동향의 변화를 크게 구분지어 보면 (1) 경험주의적 접근법, (2)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 (3) 인본주의적 접근법, (4) 비판주의적 접근법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주요 연구주제들로는 경험주의적 접근법에서는 관광지역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한 현황설명,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에서는 공간분석과 진화론적 연구, 인본주의적 접근법에서는 관광객 행태, 장소성의 문제, 비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관광의 상품화, 관광객의 시선 등이다. 최근 영미 관광지리학의 연구경향은 가치중립적인 응용지리학적 연구와 가치지향적인 비판주의적 연구가 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성장, 지리학과 관광의 밀접한 연관성, 영미 관광지리학자들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인해 관광지리학은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관광지리학, 경험주의적 접근법,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 인본주의적 접근법, 비판주의적 접근법

Abstract : This research reviews how tourism geography studies in Anglo-American tradition have evolved since 1930s.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two fold. One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ourism geographies research trends in terms of research approach and major research themes. The other is to bring out the les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ourism geographies research. For these purposes, the selected papers and texts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four research approaches: (1) empiricist approach, (2) positivist approach, (3) humanist approach, and (4) critical social theory approach. The major research themes are the explanation of destination through descriptive research in empiricist approach, spatial analysis and evolutionary research in positivist approach, tourist behaviour and place identity in humanist approach, and tourism and consumption in critical social theory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Anglo-American tourism geographies stud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growth of tourism industry, the close relation of tourism and geography in nature, and the active contribution of tourism geographers.

Key Words : tourism geographies, empiricist approach, positivist approach, humanist approach, critical social theory approach.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Chief Researcher, Tourism Research Division,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e-mail: freeestrong@kctpi.re.kr)

1. 서론

1) 연구목적

오늘날 관광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사회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 일뿐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Mathieson and Wall, 1997), 이런 관광의 중요성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Jafari and Ritchie, 1981; Jafari, 1993). 특히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관광학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는 *Annals of Tourism Research*는 1991년 “Tourism Social Science” 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학 연구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다룬 특집호를 내기도 했다.

지리학에서도 관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지리학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 Union:IGU)에는 관광 관련 위원회와 연구그룹이, 미국지리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AG)에도 역시 관광 전문 하위분과가 있다.¹⁾ 그러나 관광지리학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것에 비해 그 연구성과는 다양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그 학문적 지평을 좀 더 넓히고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영미 관광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Britton, 1991; Squire, 1994; Williams, 1999; Hall and Page, 2002).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관광지리학 분야의 연구주제를 넓히자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리학의 연구패러다임이나 연구기법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광지리학이 나아갈 바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과거 관광지리학 연구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he학문 분야에서의 관광연구와 구별될 수 있는 관광지리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리학에서의 관광연구가 특정분야에 고착되지 않고 자립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물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이 국내 관광지리학 연구에 미치는 학문적 시사점도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지리학 분야에 대

한 연구는 일부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용적 속성이외에는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리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연구경향성을 보여 온 영미관광지리학 연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관광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해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국내 관광지리학 연구에 의미하는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개념의 정의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2차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법을 사용했다. 관광지리학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주요 논문과 단행본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의 효율을 위해서 그 시기는 영미권에서 관광지리학의 탄생으로 추정되는 1930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영미권의 저술로 한정했다. 또한 관광관련 저널에 명백히 지리학적 관점이나 지리학과 관련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물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가 지리학 전공자이거나 연구논문이 지리학 관련 저널에 발표된 것들로 제한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관광지리학’의 정의에 대해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영미 관광지리학에서는 관광지리학에 대한 표기를 ‘Geography of tourism,’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Geography of tourism & recreation,’ ‘Tourism geographies’ 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관광에 한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휴양(Recreation)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광의의 관광지리학 개념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관광과 휴양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²⁾, 둘째 실제로 여가 활동(Leisure activities)에서 점점 관광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지리학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도 관광지리학이라는 개념을 휴양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주요 관광지리학 연구 성과물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2. 지리학에서의 연구 패러다임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후, 패러다임의 개념은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 많은 학문 분야로 확대되었다. 학문의 발전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기존의 정상과학에 의해 생성, 발전하다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되고 그 패러다임은 다시 또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된다는 쿤의 주장은 관광지리학의 연구 경향과 접근법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한 관점이다. 그러나 관광지리학의 경우 해당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리학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관광지리학의 연구접근법에 대한 변화가 지리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지리학 전체 연구패러다임의 변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학에서의 연구 패러다임은 대체로 1) 經驗主義的 접근방식(empiricist approach), 2) 論理實證主義的 접근방식(positivist approach), 3) 人本主義的 접근방식(humanist approach), 4) 批判主義的 접근방식(critical social theory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연구접근방식의 배경과 간략한 특징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경험주의적 접근방식은 1950년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연구접근법으로 지역지리(regional geography)연구법이라고도 한다. 지리학의 본질은 지역의 특성을 서술하고 밝히는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 접근법은 記述的 연구(descriptive research)의 방식을 취한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상세한 기술에 중점을 둔 이 연구법은 초기 지리학 연구에서 매우 활발했지만 이후 지역구분의 모호성과 어려움, 단순한 사실 나열의 기술방법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면서 1950년대 이후로 차차 쇠퇴하게 되고 이후 논리실증주의의 등장에 그 입지가 약화된다(김인, 1983).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방식의 도래는 정량적 접근법과 통계 패키지의 사용법 채택 등으로 인해 지리학계에 불어 닥친 계량혁명(quantitative revolution)과 연

관이 깊다. 계량혁명을 통해 지리학의 많은 분야가 정량적 연구방식을 채택했다. 지역답사를 통한 연구지역의 이해보다 공간 현상을 계량화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려는 접근방식이 정량적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기저에 자리한 것이 바로 논리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Auguste Conte)에서 그 뿌리가 시작된 논리실증주의는 무엇보다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연구방법론 역시 주로 가설수립과 그 가설의 검증을 통해 법칙수립을 시도하는 계량적 연구기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지리학에서도 전통적인 지리학의 연구대상이었던 지역이 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연구주제도 공간패턴의 형성과정과 공간조직의 분석 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이희연, 1991).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방식은 1960년 이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으나 지나치게 실제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즉, 실제 세계는 단순히 통계 패키지에 의한 기계론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 차이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장소와 환경에 대한 의미파악과 현상해석이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적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해석학(hermeneutics)에서 기원한 사회과학의 해석주의(interpretivism)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 접근방식은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 쪽에서 특히 그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현지조사(field research)등의 방법을 통해 맥락(context)의 중요성에 따른 사회현상의 의미파악을 강조한다(Smith, 1979; Neuman, 2000).

마지막으로 비판주의적 접근법은 지리학의 사회참여와 현실개선의 문제를 부각시킨 접근법이다. 급진주의 지리학(radical geography)에서의 이 접근법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구조주의(structuralism), 페미니즘(feminism), 갈등이론(conflict theory)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공간분석 지리학과 해석주의의 인본주의 지리학을 모두 비판한다. 즉 공간분석 지리학이 실제 세계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순한 기계론적 분석으로 일관한다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인본주의 지리

표 1. 지리학에서의 연구패러다임과 특성

	경험주의적 접근법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	인본주의적 접근법	비관주의적 접근법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지리(regional geography) 연구방법 지역의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여 경험적 기술에 치중. 단순 사실 나열의 기술방법에 대한 회의로 1950년대 이후 영향력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혁명에 영향을 받아 정량적 연구방법 채택 공간패턴의 형성 과정과 공간조직의 분석에 초점 가설수립과 가설 검증을 통한 법칙수립에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리실증주의 접근법의 기계론적 해석에 반발하여 등장. 개인의 인식차이와 현상 해석,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의미파악 강조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리실증주의와 인본주의적 접근법을 모두 비판. 지리학의 사회참여와 현실개선을 촉구하는 가치 지향적 연구를 강조

학 역시 모든 사회현상의 의미파악에만 주력한 나머지 지나치게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소홀하다는 것이 급진주의 지리학 비판의 골자이다. 따라서 급진주의 지리학의 경우 지리학은 단순히 공간과 지역을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지리학의 사회참여를 적극 주장한다(Peet, 1977; 김인, 1983; Neuman, 2000).

이상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 변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리학적 패러다임들이 관광지리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광지리학의 패러다임은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지를 논의한다.

3. 영미 관광지리학에서 연구접근법과 주제들의 변천

1) 경험주의적 접근법과 연구주제

관광지리학 연구에서도 경험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방법은 역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미권의 지리학 분야에서 관광지리학의 시작 - 즉, 학술지에 실사된 관광지리학 논문이 발표된 시점 - 은 1930년대로 인정되고 있다(Mitchell and Smith, 1985). 당시의 연구들은 캐나다 록키의 휴양도시와 광산촌을 비교한 사례연구(Jones, 1933), 관광지역에서 휴양목

적의 토지 이용도에 대한 연구(McMurry, 1930)와 같은 휴양지역에 대한 기초적 조사 형식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Mitchell(1984)의 지적처럼 당시의 관광지리학 연구는 공통되는 경향성을 찾기보다는 각각의 관광지역에 대한 개별적 연구방식을 사용하여 대부분 지역에 대한 묘사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를 통해서 휴양지역의 형성과정을 상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50년대 이전의 지리학 연구가 경험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지역 연구에 주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McMurry(1930)는 미국 미시간 지역에서 휴양활동이 증가하면서 농업적 토지 이용도가 낮아지는 대신 휴양목적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로를 통해 휴양지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밝힌 바 있고, Jones(1933)도 캐나다 앨버타주의 탄광지역과 관광지역 두 곳을 사례로 각각의 자연 자원과 지역구조의 차이점을 비교, 자세히 기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요컨대 초기 관광지리학의 특성은 일반적인 관광현상을 설명하는 규범적 연구보다는 개별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기술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기법은 경험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북미의 경우는 초기 관광지리학에서 최근의 연구경향과는 다르게 여행 같은 이동성의 여가 활동보다는 휴양(특히 야외휴양: outdoor recreation)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북미는 국내관광이 미처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 여가활동 중 이동하는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기초적인 야외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Carlson,

1980). 한편 영국과 캐나다의 경험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초기 관광지리학 연구는 몇몇 소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영국의 경우 해안 리조트의 발전에 관한 Gilbert(1939, 194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Gilbert(1949)는 영국의 브라이튼(Brighton)을 사례로 하여 어떻게 영국의 휴양관광이 내륙 온천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옮겨가게 됐고, 해안의 리조트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연구를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지리학자 Wolfe⁴⁾ (1951, 1952)의 연구가 돋보였는데 그는 온타리오주의 여름별장(summer cottage)에 대한 연구로 차후 교외지역의 세컨드 홈(second home) 발전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쌓았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접근방식의 관광지리학 연구는 계량혁명의 기치가 높았던 60년대 이후에는 주춤하기는 했지만 명맥이 꾸준히 이어졌다. 눈길을 끄는 연구로는 우선 Winsberg(1966)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매우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였지만 그동안 거의 미국 국내 지역에만 국한됐던 연구주제를 국제무대로 그 범위를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밖에 Wolfe(1967)는 순수 휴양목적의 여행-여름이나 겨울에 행해지는避暑나避暑 형태의 여행-에 대한 짧은 연구노트를 발표했다는데, 그는 이러한 성격의 여행을 “새로운 移住(New migration)”라고 명명하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Mitchell(1969)은 도시 휴양(Urban Recreation)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휴양이 특정한 시기나 지역에 국한되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공간인 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휴양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함을 일깨웠다.

이렇게 경험주의적 접근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는 연구방식은 다른 지리학 분야들에 비해 관광지리학 분야에서는 그 효능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 Mitchell(1984)은 연구주제인 관광지역의 특성과 관광지리학 초창기에 세워진 연구경향의 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광지역은 관광자원을 이루는 독특한 관광경관(tourist landscape)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초기의 관광지리학자들은 이러한 경관을 설명하고 그 경관의 배경이 되는 관광지역의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초기에 확립된 기술위주의 연구경향이 관광지리학 분야에서는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는 설명인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주의적 접근법은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과 인본주의적 접근법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영미 관광지리학자들의 제 3세계 관광지에 대한 연구-특히 국제관광의 영향(Tourism Impact)에 대한 연구들(例:Boissevain, 1979; Hyma and Wall, 1979; Cukier and Wall, 1993)-에서는 여전히 기초적으로 이용되었으며 관광지리학 교과서들 중에서 관광지역의 현황과 지역적 특색의 소개에 중점을 두는 教材⁵⁾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末 이후에도 경험주의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용하게 쓰였다. 1980년대에는 세계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지리학자들에 의한 세계 주요 관광지역이나 관광목적지(destination)등의 관광현황, 관광개발과 국제적 관광 프로세스 등에 대한 著作(例: Lew and Wu, 1995; Hall, 1997; Hall and Page, 1996, 2000)이 이어졌는데, 그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쓰인 것이 역시 경험주의적 접근법으로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그 생명력은 매우 길다고 말할 수 있다.

2)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과 연구주제

경험주의적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기는 했지만 관광지리학 연구에서도 논리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지역의 공간분석(spatial analysis)과 관련된 연구물이었다(例: Williams & Zelinsky, 1970; Malamud, 1973; Smith, 1983a; Corsi and Harvey, 1979; Pearce, 1987). 관광지리학의 공간분석과 관련된 연구주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 여행자 이동과 여행패턴(tourist flows and travel pattern)의 추구가 주된 경향을 보였는데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력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관광지리학에서는 발생하는 관광(여행)의 총량을 말한다)은 일반

적으로 두 지역 간의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 비례한다는 것인데⁶⁾, Crampon(1966)은 콜로라도 州를 찾는 미국 내 관광객들의 수요모형을 만들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했으며, Williams and Zelinsky(1970)도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의 국제관광객 이동 패턴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중력모형은 '공간구조효과(spatial structure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여 더욱 정교한 기법으로의 발전을 꾀했는데, 여기에는 Fotheringham(1981, 1983)의 공헌이 컸다. 계량지리학자인 그는 기존의 중력모형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와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같은 복합적인 공간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공간구조효과의 변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⁷⁾ 또한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공간분석의 주요 이론가인 Smith(1989)는 중력모형이 관광현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 현상을 예측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력모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되는 수정을 통해 모형의 세련도가 높아졌으며, 모델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모형의 기본적 유효도가 확인됐다는 점이 중력모형의 가장 큰 장점을 역설했다. 현재 관광지리학 연구에서 중력모형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공간마찰력에서 거리변수의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과 관광행태에 따른 집단 세분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분석기법에서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이 공헌한 또 다른 점은 공간분석과 함께 관광지(Tourist destination)에 대한 진화론적 연구(evolutionary research)를 낳았다는 것이다. 지리학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관광지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관광지리학에서는 특정지역에 관광개발이 진행돼 관광지로 바뀌고, 성장하며, 쇠퇴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Butler(1980)의 '관광지 수명주기(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모델이다. 캐나다 지리학자인 Butler는 경영학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을 응용하여 관광지의 발달

과정을 모델화했다. 그는 관광지 리조트 발달과정을 모델로 관광지 수명주기를 탐색(exploration)/개입(invovement)/개발(development)/강화(consolidation)/정체(stagnation)/쇠퇴(decline) 또는 재활성화(rejuvenation)/의 단계로 구분, 관광지로서의 고유한 매력(authentic attractiveness)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Butler, 1980).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은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낳았는데, 대표적인 연구물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ovinen(1981, 1982)은 버틀러의 모델을 펜실베이니아의 아미쉬(Amish)문화 지역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광지 수명주기모델의 세 단계, 즉 탐색/개입/개발의 단계들은 실제로 일치했으나 강화와 침체단계는 새로운 '성숙(maturity)'의 단계로 통합되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Hovinen은 Butler의 모델은 관광지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만 포커스를 두었지만, 실제로 각 관광지는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산업적 부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명주기이론에 '성숙'의 단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Lundgren(1983)도 몬트리올 로렌시아 지방의 관광지 발달유형이 교통 발달, 소비자 선호도와 같은 외적요인에 의해서도 영향 받았음을 밝혀냈다. 한편 Haywood(1985)는 Butler 모델에서 나타난 관광지 발달단계들이 실제적으로 관찰된 사례와 다를 수도 있고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지만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이 척박한 관광개발 이론에 자생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중력모델과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관광지리학에서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의 특징은 다른 지리학 분야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다양한 관광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행위모델의 구축에 연구의 중심이 있다는 것- 중력모형과 관광지수명주기 모델은 그 대표적인 사례 - 이다. 또한 관광지리학에서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은 단순한 개념 정립과 모델 구축의 차원을 넘어 관광행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광개발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전략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유효성을 더욱 인정받는 분야가 바로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이다.

3) 인본주의적 접근법과 연구주제

지리학에서 인본주의적 접근법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장소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경험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관광지리학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로는 관광객 행태(tourist behavior), 장소성의 문제 등이 있다.

우선 관광객 행태에 관한 연구로는 관광객의 호텔입지에 대한 선호도(Arbel and Pizam, 1977), 신혼여행지에서 나타난 관광객 행태에 대한 비교연구(Carlson, 1978), 관광객 행태 패턴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Cooper, 1981), 바하마 섬의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 유형에 따른 행태 분석(Debbage, 1991) 등이 주요 연구들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관광지리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연구들은 행태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연구들과 다르게 관광객들의 방문지 선택 동기에 있어 개인적 선호도나 인식 못지않게 시공간적 제약(time-space constraint)의 조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장소의 특성에 관심을 두는 지리적 관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본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한 관광지리학 연구의 또 다른 주요한 주제였던 장소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Relph(1976)의 저작 '*Place and Placelessness*'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acCannell(1973)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장소경험(place experiences)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예외적인 성과가 바로 Relph의 연구다. Relph는 이 책에서 장소의 의미(meaning)와 정체성(identity), 고유성(authenticity)의 이슈들을 관광과 관련지어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 관광객들이 장소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몰개성적으로 '디즈니화(Disneyfication)' 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또한 현대의 관광활동이 장소를 방문하여 경험하는 주체적인 활동보다는 관광가이드나 에이전트(agent)들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수동적인 행위가 되고 있음을 그는 지적한다. 이렇게 관광이 단순한 휴양이나 여가행위가 아니라 특정 공간 -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관광지 - 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체험하는 장소경험이라고 보는 인본주의적 접근은 관광경관의 해석문제를 다룬 Duncan and Duncan(1988), 현대 사회에서 인위적 장소 만들기에 이용되는 관광과 경관의 관계에 대해 다룬 Hughes(1992)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인본주의적 접근법의 또 다른 의의는 다음에서 논의될 비판주의적 관광지리학 접근에 대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Urry(1991)의 'Tourist Gaze(관광객의 시선)'은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특정관광지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기존의 인본주의적 시각에 따른 행태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권위와 시선에 의해서 - 즉 지배적인 사회적 상상력에 의하여 - 관광자를 바라보고 결정하게 되는 사회적 프로세스를 밝혀낸 연구였는데 이는 관광지리학에서 인본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즉, 개인의 주관적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일반화가 어렵고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무시한다는 점)를 극복한 것이었다.

4) 비판주의적 접근법과 연구주제

지리학에서 비판주의적 접근법은 1980년대부터 시작돼 세계화(globalization), 성(gender), 포스트모더니즘, 정체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 중 관광지리학에서의 비판주의적 접근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본축적과 관광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연구와 관심환기를 촉구한 Britton(1991)의 연구논문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itton은 기존의 관광지리학 연구들이 대부분 관광객 이동 묘사, 관광행위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관광

지의 공간적 구조와 토지 이용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고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주제들이 분명히 관광에서 필요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방법이 대부분 단순 기술적이며 이론적 바탕이 약한 점을 비판하면서 특히 지리학자들이 현대 관광의 자본주의적 속성을 직시하지 않는 점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즉 Britton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광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와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본의 생리에 따라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소비행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관광은 공간적 변형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형, 특히 문화의 생산과 소비과정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관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밝혀내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관광지리학의 새로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itton, 1991, 452-455).

관광지리학의 이런 비판주의적 접근방법 연구를 잘 보여주는 성과물로 Shaw and Williams(1994)의 저작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비판적 지리학 단체인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의 지리학 시리즈 일환으로 출판된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라는 책에서 이들은 관광과 여가시설의 생산과 소비, 관광과 여가활동의私有化 및 상품화 현상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지리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Shaw and Williams(1994)에 따르면 관광과 여가는 생산과 소비시스템의 문제로 그 시스템을 갖춘 사회로부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Britton(1991)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관광지리학의 비판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영국의 사회학자인 Urry의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Urry의 '관광객의 시선'이라는 개념은 재현(representation)과 재현의 해석이라는 문제를 관광분야에 적용시킨 것으로 그 논리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직접적인 관광지를 방문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관광가이드북, TV나 드라마를 통한 이미지의 경험 같은 간접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도 그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 - 즉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 은 결코 관광객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rry는 관광에 있어 재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즉 관광객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누가 그 시선에 권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Urry는 현대사회에서 관광객들은 비일상적인 것- 즉 일상적 경험과 분리된 경관이나 경험의 실천 - 을 중요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광은 기호(sign)의 수집 활동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점, 관광 매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 끊임없이 관광대상과 관광지의 '非일상성' 을 증폭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 이에 따라 관광지는 그러한 비일상성에 기반을 둔 장소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Urry, 1991).

Urry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사회에서 관광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프로세스 뿐 아니라 관광패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관광은 매우 시각적인 실천행위이며 전문적인 관광가이드나 여행전문가들에게 매우 의존하고 있다. Williams(1999)가 간파했듯이 현대 관광객들은 TV와 영화를 통해 알려진 관광지를 방문하고 그곳의 기념품이나 엽서를 수집하며 대중매체는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 끌 관광대상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리고 현대 대중관광에서 볼 수 있는 소수의 special interest tourism 같은 문화유산관광이나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선호도 변화가 반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품과 관광유적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들 - 즉 관광정보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광가이드나 여행전문가-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Zukin(1991)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경험은 新생산자에 의해 고도로 매개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광행태의 변화 역시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다. Richards(1996) 또한 현대 관광패턴의 한 특성인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의 역사를 살피는 통시적 연구를 통해 80년대 유럽의 문화유산 관광 발달은 확대된 新중간계급내에서 구별되는 두 계급인 新흥부르주아지(New bourgeoisie)의 소비양식뿐 아니라 新문화중개자(New cultural intermediaries)의 문화자본생산과 관광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문화자본(Real cultural

capital)의 축적에 의해 촉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Meethan(1996)도 영국의 도시 York가 문화유산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후기 산업사회의 자본축적과정과 연결돼 있으며, 따라서 문화유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행위가 아니라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비판주의적 접근방법의 관광지리학 연구에서 이러한 관광과 소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장소 마케팅 또는 장소판촉의 문제와 연결된다. 비판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장소 마케팅의 주된 주제는 장소마케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소 이미지와 문화적 조작, 장소 마케팅 효과의 특정 계층 집중에 따른 이익 배분의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例: Ashworth and Voogd, 1990; Kearns and Philo, 1993; Waitt and McGuirk, 1997; Tunbridge and Ashworth, 1996). 이러한 장소 마케팅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新문화지리학의 문화정치학(cultural politics)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와도 관련된다. 산업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공간의 재편과정에서 소비공간의 득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센터 및 여가공간의 확장, 일상 경관의 이벤트화 문제는 신문화지리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Hughes, 1992; Squire, 1994).

5) 종합 및 쟁점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영미 관광지리학의 연구경향을 연구접근법과 주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리학 분야의 통시적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지리학 분야는 지리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연구접근법과 주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것처럼 일반적인 지리학 패러다임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 경험지리학의 전통이 오래도록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행태주의적 접근에서 환경의 강조 등 -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현재 관광지리학의 주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목되는 연구경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둔 관광지리학의 응용적 연구다. 이 분야는 이른바 관광

지리학의 실제적인 응용여부를 중시, 공공정책이나(지역)관광개발과 같은 공공성과 시의성을 가진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연구태도를 보이며 정책개발이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및 테크닉의 기법 개발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응용지리학적 연구경향은 최근 들어서 관광산업의 발달과 여가시간의 증가 및 가처분 소득의 증대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지리학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서 지리학과 커리큘럼의 개발 측면에도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Bristow, 1999).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판주의적 관광지리학 연구접근이다. 전자의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응용적 연구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인 비판적 관광지리학 연구접근은 가치 지향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응용지리학과 비판주의적 지리학의 대립은 비단 관광지리학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계량혁명 이후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응용지리학자들은 도시 정책 및 지역계획, 교통 계획, 입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 해 왔고 그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응용지리학적 연구 수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비판도 확산됐다. 특히 응용지리학적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대두됐다. 그 골자는 응용지리학들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개선하거나 現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주의적 관광지리학자들은 응용지리학적 성격의 관광지리학 연구들이 관광지의 공간구조 분석, 수급분석 등의 현상적 문제에만 몰두함으로써 여가의 사유화, 관광지의 상품화, 여가 소외 계층의 문제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가지 관광지리학 연구 경향성의 흐름은 1980년 이후 영미 관광지리학의 대표적 텍스트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Pearce(1987, 1995)의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와

Smith(1983b)의 *Recreation Geography*는 응용지리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텍스트이다. 특히 Smith(1983b)의 저서는 관광지리학의 연구방법을 크게 記述(descriptive), 설명(explanatory), 예측(predictive), 규범(normative)적 연구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분석적 연구기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관광지리학의 응용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공급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광에 대한 산업적 접근은 Ioannides and Debbage(1998)의 *The Economic Geography of The Tourist Industry: A supply-side analysis*(Ed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리학자 - 특히 경제지리학자 - 들의 관광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의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광산업에서 관광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다양한 국제사례 제시를 통해 지리학자들의 관광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비판주의적 관광지리학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텍스트로는 앞서 들었던 Shaw and Williams (1994)의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이외에 Crouch(1999)의 *Leisure/ Tourism Geographies; Practices and geographical knowledge* (eds.)가 있다. 앞서 Ioannides and Debbage(1998)의

저작이 경제지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관광에 대한 연구를 주장했다면 Crouch(1999)는 관광에 대해 (新)문화지리학적 접근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 Crouch는 현대 사회에서 여가와 관광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또한 여가와 관광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서 體化(embodiment)되고 있는지를 다른 필자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 테마 파크(theme park) 및 여름 커티지(cottage)와 사이버스페이스 같은 다양한 여가 공간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실천의 문제 등 여러 주제에 걸쳐 날카롭게 관광과 여가, 공간의 연관성을 파헤친다. 한편 이러한 관광지리학 연구경향의 두 가지 흐름, 즉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응용지리학적 연구경향과 비판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급진적 연구경향을 모두 포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텍스트도 있는데 Hall and Page(1999, 2002)의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Environment, Place and Space*와 Williams(1999)의 *Tourism Geography*가 그것이다. 이 두 책은 앞의 대조적인 두 접근방식을 모두 포용하며 경험주의적 접근과 인본주의적 접근까지도 아우른다. 또한 이 두 책은 특정한 연구경향이나 연구주제를 주장하기보다는 관광학 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시각의 공헌도를 강조함으로써 비단 관광지리학 연

표 2. 의미 관광지리학에서의 연구접근법과 주요 연구주제 및 특성

	경험주의적 접근법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	인본주의적 접근법	비판주의적 접근법
주요 연구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역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술 • 관광지역의 현황과 지역적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분석을 통한 관광지 연구조 연구 • 관광수요모형/ 관광지 수명주기이론 등의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행태분석, 시·공간적 패턴연구 • 관광지역의 장소성 상실/인위적장소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의 상품화 / 관광객의 시선 • 관광행위와 소비과정 / 장소마케팅 특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지역에 대한 記述적 연구로 각 지역의 특색에 대한 설명에 주력 • 1960년대 이후에도 관광지리학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명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현상의 일반적 설명이 가능한 모델구축에 노력 • 관광개발과 정책수립 부분에 응용지리학으로서의 역할 중시(관광의 산업적, 발전적 도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행태분야 연구에서 환경적 제약에도 비중을 둠 • 관광지리학의 비판주의적 접근에 영향(개인 → 개인과 사회로의 연구관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문화지리학과도 관련(문화정치학/ 포스트모더니즘) • 관광지리학의 가치중립적인 접근법 비판(관광행위의 정치성, 문화적 의미 파악 강조)

구자들뿐만 아니라 他분야의 관광학 연구자들에게도 지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유용성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以上 지금까지의 영미 관광지리학의 연구 접근법과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접근법과 주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영미 관광지리학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영미 관광지리학의 앞으로의 전망과 그것이 한국 관광지리학에 가지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영미권의 지리학에서 관광에 대한 연구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예측의 배경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자리한다.

첫째, 지리학의 학문적 속성과 관광의 속성이 갖는 공통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리학은 지표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 그 결과로 생겨나는 지역적 특성 등에 큰 관심을 갖고 무엇이 사회적 공간과 장소를 구성하는지, 그 공간과 장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프로세스의 규명을 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관광이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프로세스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이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動因(agent of change)의 하나다. 따라서 지리학과 관광은 근본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산업적 측면으로서의 관광이 갖는 지속적인 성장세 때문이다. 세계관광기구(WTO)는 2010년 국제관광수요를 10억 명, 2015년 수요를 16.5억 명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국제관광에 대한 수요만을 추정한 것으로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관광산업의 외형이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제수지의 이동뿐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문화적 동화 또는 문화적 갈등의 문제, 사회적 제도 개선 또는 문화양식의 파괴 등 다양한 이슈와 문제가 파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도 계속될 것이고 그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셋째, 영미 관광지리학자들이 탄탄한 학문적 입지를 구축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미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학자들로는 Douglas Pearce, Geoffrey Wall, Michael Hall, Richard Butler, Stephen Page, Stephen Smith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비단 관광지리학 분야 뿐 아니라 관광학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임으로써 지리학 저널 뿐 아니라 *Annals of Tourism Research*나 *Tourism Management* 같은 대표적 관광학 관련 저널에 연구성과를 게재, 관광인류학이나 관광경제학, 관광사회학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학문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리학적 베이스를 갖춘 신진 관광학자들의 여가학과(Department of Leisure Studies)나 공원 및 야외휴양학과(Department of Park and Outdoor Recreation)같은 분야로의 진출도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영미권의 지리학과에서 관광지리학 전공 Faculty의 비약적인 증가까지는 아닐지라도 관광학 관련 연구 분야에서 지리학자들의 공헌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미권 관광지리학의 발전과 예측이 한국의 관광지리학에 시사하는 점으로는 학문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측면으로는 한국 관광지리학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반성이다. 한국 관광지리학은 그 학문적 출발이 늦었을 뿐 아니라 연구 인력의 부족과 지리학계에서의 관심부족으로 뚜렷한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문적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리학계에서 저평가되어왔다(김선희, 2003). 최근 들어 연구의 양적인 성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연구 주제들이 관광지 현황, 관광자원, 관광객 행태, 관광개발의 파급효과와 같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질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연구물의 대부분이 특정 학술지에 집중됨으로써 영미처럼 활발한 학제간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쇄성을 띠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무엇

보다 관광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 부족과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⁸⁾ 영미권의 관광지리학 연구에서처럼 좀 더 연구접근법의 다양함을 지향하고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지리학 분야에서의 성과물을 폭넓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 관광수요에 대해 국내 지리학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던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지리학은 종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훈련 덕분에 인접 학문에 비해서 현실문제에 대한 참여가 용이하고 폭 넓은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냉정히 돌이켜 볼 때 지난 반세기의 한국지리학은 이러한 지리학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나 사회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배출하는데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평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관광분야에 대한 지리학의 참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2005년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집행의장국으로서의 선출, 1,000만 명 국제여행 시대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산업과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국내 지리학자들의 참여는 안타깝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물론 학문의 사회적 참여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겠지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리학 학문 전체의 위상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관광지리학의 학문적 책무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리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장소 마케팅, 축제, 문화유산관광 등 관광 분야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시각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제 21세기의 한국 관광지리학계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바탕으로 지리학 내부에서의 내실을 꾀함과 동시에 인접학문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그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註

- 1) IGU에는 1984-1992년까지 <IGU Commission on Tourism and Leisure>, 1994-2000년까지 <IGU Geography of Sustainable Tourism>, 2000-2004년까지 <IGU Study Group on the Geography of Tourism, Leisure and Global Change>가 활동했으며 현재는 <Geography of Tourism, Leisure and Global Change>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AAG에는 <Specialty Group of Recreation, Tourism and Sports(RTS)>가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다. RTS는 CAG(Canadian Association of Geographers)의 학자들도 소속되어 있다.
- 2) 여가와 관광, 휴양의 개념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것. Moore, K. Cushman, G. and Simmons, D. (1985) "Behavioural conceptualizations of tourism and leisu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67-75. 그리고 Smith, S. and Godbey, G. (1991),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1), 85-100.
- 3)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관광지리학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Tourism Geography'가 아닌 'Tourism Geographies'라는 복수형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지리학 전문학술지인 <TOURISM GEOGRAPHIES>(Routledge)인데 이 학술지에는 관광만이 아니라 휴양, 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실고 있다. 한편 여가지리학(Geography of Leisure)이라는 용어로 관광을 포함해서 지리학의 여가분야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가활동에 넣을 수 없는 비즈니스 여행(Business travel)이나 이동성을 포함하는 관광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 4) AAG의 RTS에서는 Roy Wolfe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자에게 Roy Wolfe Award를 수여한다.
- 5) Boniface, Brian and Cooper, Christopher(1987)의 *The Geography of Travel & Tourism*(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이 이런 성향의 관광지리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초반부에서 간단히 관광지리학의 개념과 관광의 수요, 공급 측면을 다룬 후, 책 내용의 대부분을 전 세계 국가들의 관광과 관련된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 6) 관광지리학에서 중력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Smith(1989), *Tourism Analysis* 특히 pp. 111-121.
- 7) 중력모형에서의 집적효과란 둘 이상의 여행목적지들이 모여 있으나 목적지들이 상호보완성의 효과를 띠게 되어 각 목적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쟁효과란 이와 반대

로 목적지들이 상호 경쟁적인 효과를 가져서 각 목적지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경쟁효과는 근거리형 목적지에서 나타나고, 집적 효과는 원거리형 목적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8) 김사현(2003)은 “한국 관광학연구 3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한국관광학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라는 글에서 외국과 달리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는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같은 기초 사회과학 분야들의 기여가 미진함을 지적하고 있다.

文 獻

- 김사현, 2003, “한국 관광학연구 3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한국관광학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관광학연구*, 27(1), 247-275.
- 김인, 1983,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 이해와 쟁점,” *지리학논총*, 10, 15-25.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서울.
- Arbel, A and Pizam, A., 1977, Some determinants of hotel location: The tourists' incl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15, 18-22.
- Ashworth, G and Voogd, H., 1990, *Selling the City*, Belhaven Press, London.
- Boissevain, J., 1979, The impact of tourism on a dependent island: Gozo, Malta, *Annals of Tourism Research*, 6(1), 76-90.
- Bristow, R., 1999, The state of teaching recreation and tourism geography in North America, *Proceedings of the New England-St. Lawrence Valley Geographical Society*, 28, 17-22.
- Britton, S., 1991, Tourism, capital, and place: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tour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 451-478.
- Butler, R., 1980, The concept of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 5-12.
- Carlson, A., 1978, The spatial behaviour involved in honeymoons: The case of two areas in Wisconsin and North Dakota, *Journal of Popular Culture*, 11, 977-988.
- Carlson, A., 1980, A bibliography of geographical research on tourism,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1, 161-184.
- Cooper, C., 1981,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tourist behaviour, *Regional Studies*, 15, 359-371.
- Corsi, T. and Harvey, M., 1979, Changes in vacation travel in response to motor fuel shortages and higher pri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7(4), 6-11.
- Crampon, L., 1966, Gravitational model approach to travel markets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April, 30-33.
- Crouch, D., 1999, *Leisure/Tourism Geographies: Practices and Geographical Knowledge*, Routledge, London.
- Cukier, J and Wall, G., 1993, Tourism employment: Perspectives from Bali, *Tourism Management*, 14(3), 195-201.
- Debbage, K., 1991, Spatial behaviour in a Bahamian res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2), 251-268.
-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26.
- Fotheringham, A., 1981, Spatial structure and distance-decay parameter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3), 425-436.
- Fotheringham, A., 1983, Some theoretical aspects of destination choice and their relevance to production-constrained gravity models,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8), 1121-1132.
- Gilbert, D., 1939, The growth of inland and seaside health resorts in England,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55, 16-35.
- Gilbert, D., 1949, The growth of Brighton, *Geographical Journal*, 114, 30-52.
- Hall, C., 1997, *Tourism in the Pacific: Development, Impacts and Markets*, Addison Wesley Longman, South Melbourne.
- Hall, C., and Page, S.(eds.), 1996, *Tourism in the Pacific: Cases and Issues*,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ublishing, London.
- Hall, C., and Page, S.(eds.), 2000, *Tourism in South and South-East Asia: Cases and Issues*, Butterworth Heinemann, Oxford.

- Hall, C., and Page, S., 1999,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Routledge, London.
- Hall, C., and Page, S., 2002,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2nd edition), Routledge, London.
- Haywood, K., 1985, Can the tourist-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3), 154-167.
- Hovinen, G., 1981, A tourist cycle in Lancaster County, Pennsylvania, *Canadian Geographer*, 25(3), 283-286.
- Hovinen, G., 1982, Visitor cycles-outlook for tourism in Lancaster Coun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9(4), 565-583.
- Hughes, G., 1992, Tourism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Leisure Studies*, 11, 31-42.
- Hyma, B., and Wall, G., 1979, Tourism in a developing area: The case of Tami Nadu, Ind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4(3), 338-350.
- Ioannides, D., and Debbage, K.(eds.), 1998, *The Economic Geography of the Tourist Industry: A Supply-side Analysis*, Routledge, London.
- Jafari, J. and Ritchie, J., 1981, Towards a framework for tourism edu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8(1), 13-34.
- Jafari, J., 1993. Scientification of Tourism: 관광학 연구의 과학화, 이연택 편저, 관광학 연구의 이해, 일신사, 서울, 33-51.
- Jones, S., 1933, Mining and tourist towns in the Canadian Rockies, *Economic Geography*, 9, 368-378.
- Keams, G and Philo, C.(eds.),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Oxford.
- Lew, A. and Wu, L.(eds), 1995, *Tourism in China: Geographic,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Westview Press, Boulder.
- Lundgren, J., 1983, Development patterns and lessons in the Montreal Laurentians, in *Tourism in Canada: Selected Issues and Options*, Western Geographical Series(21), Murphy, P.(ed.), 271-308,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BC.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589-603.
- Malamud, B., 1973, Gravity model calibration of tourist travel to Las Vega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1), 13-33.
- Mathieson, A. and Wall, G., 1997, *Tourism: Change, Impacts and Opportunities*, Harlow: Longman, New York.
- McMurry, K., 1930, The use of land for recre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0,7-20.
- Meethan, K., 1996, Consuming (in) the civilized 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322-340.
- Mitchell, L., 1969, Towards a theory of public urban recreation,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 103-108.
- Mitchell, L., 1979, The geograph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special issues: Geography of Tourism*, 6(3), 57-70.
- Mitchell, L., 1984, Tourism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 geographic perspective, *Geojournal*, 9(1), 5-15.
- Mitchell, L. and Smith, R., 1985, Recreatio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s, *Professional Geographer*, 37, 6-14.
- Mitchell, L. and Murphy, P., 1991, Geography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1), 57-70.
- Murphy, R., 1963, Geography and outdoor recreation: an opportunity and an oblig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15(5), 33-34.
- Neuman, W., 2000,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4th edition), Ally & Bacon, Boston.
- Pearce, D, 1987,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London, Harlow.
- Pearce, D., 199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London, Harlow. 2nd edition.
- Peet, J., 1977, The development of radical 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 240-263.

- Relf,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Richards, G., 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61-283
- Shaw, G., and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Blackwell, London.
- Smith, N., 1979, Geography, science and post-positivist modes of explan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 356-383.
- Smith, S., 1983a, Restaurants and dining out: Geography of a tourism busines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4), 515-549.
- Smith, S., 1983b, *Recreation Geography*, Longman, Harlow.
- Smith, S., 1989, *Tourism Analysis*, Longman, Essex.
- Squire, S., 1994, Accounting for cultural meanings: The interface between geography and tourism studies re-examin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1), 1-16.
- Tunbridge, J and Ashworth, G.,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Wiley, Chichester.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Sage, London.
- Waite, G and McGuirk, P., 1997, Marking time: Tourism and heritage representation at Millers point, Sydney, *Australian Geographer*, 27(1), 11-29.
- Williams, A. and Zelinsky, W., 1970, On some patterns of international tourism flows, *Economic Geography*, 46(4), 549-567.
- Williams, S., 1999, *Tourism Geography*, Routledge, London.
- Williams, S. and Shaw, G., 1988,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Western European Experience*, Belhaven Press, London.
- Winsberg, M, 1966, Overseas travel by American civilians since World War II, *Journal of Geography*, 65, 73-79.
- Wolfe, R., 1951, Summer cottages in Ontario, *Economic Geography*, 27(1), 10-32.
- Wolfe, R., 1952, Wasaga beach: The divorce from the geographic environment, *Canadian Geographer*, 1(2), 57-65.
- Wolfe, R., 1967, Recreational travel: The new migration, *Geographical Bulletin*, 9, 73-79.
- Zukin, S., 1991,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교신 : 신용석,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이메일 : freestrong@kctpi.re.kr, 전화: 02-2669-6938)
- Correspondence : Yongseok Shin, Chief Researcher, Office of Tourism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e-mail : freestrong@kctpi.re.kr, Tel : 02-2669-6938)

최초투고일 05. 6. 7

최종접수일 05. 8. 12